

# 예외를 보는 시선과 더블\*

- 박경리 소설의 결손 인물

이상진\*\*

차례

1. 예외를 보는 예외적 시선
2. 전쟁고아와 불편한 신체
3. 비이성적 공포와 혐오감
4. 생명의 아픔, 그 죄의식

## 〈국문초록〉

박경리는 주제나 개성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인물을 창조했는데, 인간의 본성과 외양묘사를 유형적으로 그리는 인물형상화가 두드러진다. 그러나 신체적 정신적 결손을 지닌 인물의 경우 이런 유형성에서 벗어난 섬세한 인물화를 통해, 인간문제에 대한 깊은 성찰과 비극적 인식을 드러낸다. 이 논문은 박경리의 『해동여관의 미나』, 『나비와 엉경퀴』, 『쌍두아』, 『토지』를 중심으로 결손인물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형상화 특징을 살피고 이의 상호 텍스트적 문제도 아울러 고찰하였다.

『해동여관의 미나』에서는 전쟁고아 및 양공주 2세의 신체를 바라보는 연민과 멸시의 이중시선이 나타난다. 이 불편한 시선은 『나비와 엉경퀴』에서 전쟁으로 인한 신체장애자와 전쟁고아의 소외와 상처에 대한 은유로 발전된다. 이들에 대한 시선과 실존적 감정을 통해, 전후 사회에서 ‘양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심'이라고 부르는 도덕적 기준이 붕괴되었음을 역설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전후의 내면적 불구성은 『쌍두아』에서 가시적인 신체 기형을 가진 인물과 더불어 형상화된다. 주인공이 자신의 더블인 그림자 인물을 대면하면서 느끼는 비이성적 혐오와 공포는 이 작품이 인간의 원죄의식, 억압된 것의 귀환을 암시하는 비극적 서사임을 보여준다. 이것은 다시 『토지』에서 곱추인 조병수에게 느끼는 최서희의 감정, 양소림의 기형적인 손을 보고 느끼는 최환국의 감정으로 이어진다. 이들이 느끼는 충격적인 혐오감과 견딜 수 없는 공포는 자아의 영속을 위협하는 억압되고 배제된 요소들이 가시화된 것을 보는 데에서 오는 '섬뜩함(Das Unheimlich)'으로 해석된다. 이는 정상성의 범위 안에서 살아남은 자가 가져야 할 죄의식으로 서 '생명의 아픔'이며 작가가 견지해 온 비극적 인식이기도 하다.

핵심어 : 박경리, 『해동여관의 미나』, 『나비와 영경귀』, 『쌍두아』, 『토지』, 더블, 예외, 결손인물, 신체기형, 공포, 혐오감, 죄의식, 섬뜩함, 상호텍스트성, 비극적 인식

## 1. 예외를 보는 예외적 시선

박경리는 『토지』에서 600명에 가까운 인물은 물론 1950~60년대 장편과 단편에서도 수많은 인물을 창조해내었다. 각 인물은 가족의 문제, 낭만적 사랑과 소외, 한과 운명,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 등을 서사화하는 주제적 인물로 형상화되었고, 초인적 인물, 결벽증적 인물, 폐쇄적 인물 등 특유의 개성적 인물창조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흥미로운 것은 다양한 인물 창조에 비해 인물의 묘사는 유형적이고 평면적인 특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sup>1)</sup>는 점이다. 심지어 신체적 불균형을 강조함으로써 악인의 탐욕

1) 박경리는 인물묘사에 인성과 개성을 포개 넣는 유형적인 인물을 많이 창조하였다. 긍정적 인물의 경우, 그 인상을 표현할 때, '깨끗하다' '맑다' '따뜻하다' '아름답다'와 같은 성상형용사가 주로 쓰이며, 때로 '귀하다', '선량하다' '친절하다' '다정하다'

을 드러내는 등 선악의 문제를 미추에 대응시키는 고전적인 인물형상화가 나타나기도 한다.<sup>2)</sup> 이런 이유로 작품을 읽을 때 인물의 외양만으로 ‘도덕적 자질’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서사를 따라가게 되어 긴장감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상성의 범위 안에서 나타나는 형상화의 특성이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외부의 폭력이나 사고 혹은 혈통적 문제, 인간으로서는 불가지한 영역의 육체적·정신적 결손이라면, 곧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예외적인 조건과 상황에 처한 인간의 형상화라면 전혀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박경리는 신체의 기형성을 포함하여 질병, 폭력에 의한 육체적 훼손, 불임, 유전적인 정신이상 증세, ‘나쁜(혹은 위험한)’ 성격 등으로 고통 받는 다양한 결손인물들을 창조하였다. 특히, 사고나 폭력에 의해 신체가 훼손되어 불편을 겪는 후천적 장애인이 아니라, 굶주나 난쟁이, 육손이 사팔뜨기 등 자연적인 균형에서 벗어난 선천적 이형성을 지닌 인물을 창조하기도 했다. 이 경우 유형적인 인물화에서 벗어나 훨씬 더 섬세하게 공들여 그려내며, 오히려 내면과 외양을 뒤집어 형상화기도 한다. 예를 들어 『토지』에서 난쟁이라고 놀림 받던 막딸이는 또래의 그 누구보다 성숙하고 선한 인물로서 후에 조강지처로서 당당한 위엄을 보이는 기성네로 성장하고, 굶추인 병수는 맑은 오성과 정확한 직감, 예술가로서의 자

---

등 성격을 단정적으로 서술하는 표현이 덧붙이기도 한다. 이에 비해 부정적인 인물은 ‘호리다’ ‘사납다’ ‘어둡다’ ‘잔인하다’와 같은 형용사가 주로 쓰이고 ‘악마 같다’ ‘야수적이다’와 같은 노골적인 비유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상진, 『<토지> 연구』, 월인, 1999. 151~154쪽.

2) 예를 들어 『토지』의 가장 분명한 악인으로 등장하는 조준구는 “상체에 비하여 아랫도리가 짧은데다 두상은 큰 편”이어서 병신스럽게 보일 것이라고 표현되며, 하인들이 까마귀나 제비에 비유하며 조롱 섞인 말을 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조준구의 부인으로 역시 악인형으로 등장하는 홍씨는 “칼로 찢어놓은 듯 가늘고 조그마한” 눈꼬리와 “희미한 빛깔”의 눈동자로, 김평산과 김거복 부자는 “튀튀하게 나온 입술”에 “위험하듯 조그만 눈”을 가진 균형 잡히지 않은 얼굴로 표현된다. 반면 선하고 긍정적인 인격을 지닌 길상은 성숙해짐에 따라 준수한 외모와 매력이 반복 서술되며, 서희의 아름다운 외모 역시 그녀의 성숙과정과 맞물려 강조된다.

질을 가진 긍정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또한 “형편없이 아위고 빈약한 체구”에 “말라비틀어지고 검버섯이 얼룩얼룩 핀 얼굴”의 주압은 사랑하는 여인의 죽음을 두고 가장 감동적인 사향가(思鄉歌)를 부를 수 있는 소리꾼이며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표현된다. 한 마디로 외양과 내면을 전도시켜<sup>3)</sup> 결손의 지점에 대한 역설적 보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박경리는 이처럼 유형적이고 평면적인 인물형상화의 한편에서 예외적이고 비정상적인 지점이나 그 경계로부터 더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그 접근방식은 인간의 삶에 대한 심오한 통찰과 문제의식에 깊이 닿아있다.

사실상, 인간의 정신적 장애, 육체적 훼손, 기형, 질병 등 정상에서 벗어나는 신체의 표지나 증상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문제를 제기하는 문학의 중요한 모티프가 되어왔다. 인간은 대체로 정상성의 범위 내에서 관습적으로 익숙해진 기준대로 대상의 전형(archetype)을 추구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에서 벗어나거나 예외적인 현상이 나타날 때 당황하고 현실 세계와 충돌하게 된다. 곧 자연계의 비정상적이거나 기형적인 것(freak)은 우리에게 충격과 공포를 주고, 예외에 대해 성찰하도록 이끈다. 그 성찰의 결과 이러한 존재는 우리의 틀에 박힌 사고방식을 바로잡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sup>4)</sup> 한편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병은 인간 조건의 한 근본적인 불안내용이며 시대와 사회, 그리고 문화 공동체 및 도덕성의 환부나 사회병리학의 표상으로서 뚜렷한 문학적 상징<sup>5)</sup>으로 표현되는 일도 많았다. 서양의 오랜 신화전통에서 장애는 수형자(受刑者)의 은유였고, 고대에는 희극적 대상이 되기도 했으며, 빅토리아 시대에는 내적인

3) 한혜선은 식민지 시기 우리 소설에서 신체적 결손인물이 정상적인 신체의 인물이 지각하지 못하고 있는 진실의 세계를 발견하는 ‘역설적인 가치의 전가치화’의 세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혜선, 『한국소설과 결손인물』, 국학자료원, 2000, 284~285쪽.) 『토지』의 이 부분은 우리 소설에 나타난 이 같은 신체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4) 마크 S 블립버그, 『자연의 농담-기형과 괴물의 역사적 고찰』, 김아림 역, 알마, 2012, 8~16쪽.

5) 이재선, 『현대소설의 병리적 상징』, 『문학의 이해』, 서강대학교출판부, 1988, 5쪽.

악의(원한, 종양, 불치)의 가지적인 징후(sign)로, 그리고 20세기에는 공포영화의 주인공으로, 멜로드라마에서는 역경을 이겨내는 감동적인 주인공으로 형상화되어 왔다.<sup>6)</sup> 하지만 인간의 질병이나 신체장애 등을 그 무엇인가의 은유나 징표로 바라보는 사고방식에 대한 비판과 저항적인 논의도 제기되었다. 수전 손택(Susan Sontag)은 암과 결핵, 에이즈와 같은 질병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와 문학적 형상화를 치밀하게 분석하면서, 어떤 질병을 사회적 일탈행위라든가 무질서의 징표로 본다든가 인과응보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등 질병을 은유적으로 다루려는 사고방식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으며,<sup>7)</sup> 레슬리 피들러(Fiedler, Leslie A.)는 비슷한 맥락에서 장애를 가진 인물을 그저 인간 스펙트럼의 한 극(pole)을 재현하는 존재, 무한히 다양한 인간의 한 부류 중 하나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8)</sup> 이런 주장은 문학작품에서 결손의 징표를 지닌 예외적인 존재를 ‘무엇’으로 그리고 ‘어떤 시선’에서 형상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신중하고 균형 잡힌 분석태도를 견지할 필요를 분명히 보여준다.

한국 현대 소설에서 결손인물의 형상화와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다. 가장 본격적인 연구를 한 한혜선에 의하면 식민지 시기 한국 근대소설에 등장하는 신체적 결손인물은 비참한 생활을 영위하고, 본래의 이름이 아닌 신체적 징표로 불려짐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사회적 냉대를 받아 열등인, 국외자, 소외자로 추방되거나 상실되며, 이 때문에 내면적 진실을 추구하며 또 다른 내면의 육체를 구축해야만 하는 고통에 시달린다는 특징을 보인다.<sup>9)</sup> 이외 최태웅, 손창섭, 장용학, 오

6) Fiedler, Leslie A. "Pity and Fear: Images of the Disabled in Literature and the Popular Arts", *Salmagundi*, No. 57, Summer 1982, Skidmore College, pp. 58~68.

7) 수전 손택, 이재원 옮김, 『질병으로서의 은유』, 이후, 2002, 15~22쪽, 88~95쪽.

8) Fiedler, Leslie A., op. cit., pp. 68~69. 장영희 역시 장애인인 인간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공동의 운명을 짊어진 사회구성원으로 간주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은유의 뒷’을 거두고 편견과 장애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장영희, 『은유로서의 신체장애 : 미국문학의 경우』, 『미국학논집』 33-1, 한국아메리카학회, 2001. 여름

9) 한혜선, 앞의 책, 280~283쪽.

정희, 조세희 등의 소설에 나타난 결손인물의 형상화에 대한 단편적인 분석이 이루어졌다.<sup>10)</sup> 이들 연구에서는 기존의 문학 장르에서 관습적으로 다루어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제기와 사회적 대응양상, 사회 병리적 현상의 상징으로서의 불구적인 신체표상 분석, 불임 혹은 훼손된 여성성에 대한 여성주의적인 접근 등이 시도되었다. 본격적이지는 않지만 박경리 소설에 등장하는 결손인물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졌는데, 질병과 혈통적 결합에 대한 여성주의적 분석, 결손인물의 운명과 혈통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폐쇄적 성격과 결합되어 드러난 비극성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sup>11)</sup>

이러한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이 논문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결손 인물을 바라보는 특정인물의 시선과 태도이다. 박경리 소설에서 결손인물의 고통은 대체로 서술자나 내포작가, 주변 인물을 통해 인간적 애정과 연민어린 시선, 혹은 예의 있는 무관심 속에 서술된다. 그러나 특정인물의 경우, 결손인물 본인보다도 더 큰 고통과 비이성적인 공포, 혐오감과 죄의식이 부자연스러운 정도로 반복해서 형상화되기도 한다. 특정한 한 인물에게만 드러나는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의 분출은 이 예외적 인물의 가시적인 결합이 상대 인물의 불편한 어떤 것, 열등하고 어두운 무엇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예외적 인물과 예외적 인물을 특별한 감정 속에서 바라보는 이 두 인물은, 내면의 불구성이 외면화되고 또 외면의 불구성이 내면화되어 상호 투사된 타자, 곧 더블(double)이라고 볼 수 있다. 더블은 어떤 한 자아에서 분리된 분신, 혹은 한 인물이 두 개의 독특하고 상반되는 인물로 나뉜 존재로서 도플

10) 대표적인 연구로 김미영, 「현대소설에 나타난 장애인물의 교육적 의미 고찰」, 『한국언어문화』 27권, 2005, 김효석, 「최태웅 소설의 작중인물 고찰-결손인물형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2010. 6; 이청, 「조세희 소설에 나타난 불구적 신체표상 연구」, 『우리어문연구』, 2006; 이청, 「오정희 소설의 불구적 신체 표상 연구-불임 모티프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44집』, 2006. 등이 있다.

11) 이경, 「<토지>에 나타난 질병의 젠더화 연구」, 『현상과 인식』, 2007. 5; 이상진, 「탕녀의 운명과 저항: 박경리의 『성녀와 마녀』에 나타난 성 담론 수정양상 읽기」, 『여성문학연구』, 2007; 이상진, 「운명의 페러독스, 박경리 소설의 비극적 인간상」, 『현대소설연구』 56호, 2014.

갱어(Doppelgänger)나 짝패(counterpart) 등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심리학적 입장에서 더블을 분석한 로버트 로저스에 의하면 더블은 근본적으로 정신 내부에 있는 혹은 심리 내적인 갈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거나 그것에 의해 간접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여겨지는 인물로서 복제나 분할로 만들어진다.<sup>12)</sup> 박경리는 특정한 결손인물을 더블로 설정하고 이들의 관계와 시선을 통해<sup>13)</sup> 가시적인 불균형성에서 환기되는 비가시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더블 비전(double vision)으로 서사화함으로써 각각의 결함은 더욱 강조되고 비극적 인식을 강화시키며, 인간과 사회의 문제를 더욱 심층적으로 포착하여 그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논문에서는 예외에 대한 시선이 드러나는 작품 『해동여관의 미나』, 『나비와 영경귀』, 『쌍두아』, 『토지』를 중심으로 예외적인 존재에 대한 형상화 방식을 어떻게 의미화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하겠다. 아울러 이 결과를 토대로 이전 소설에서 탐색되어 온 인간 조건과 비극적 인식의 문제가 『토지』에서 어떤 방식으로 완성되고 있는지 상호텍스트적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 2. 전쟁고아와 불편한 신체

『해동여관의 미나』(『사상계』, 1959.12)는 전쟁의 후유증으로 당대 사회 문제가 되었던 양공주와 혼혈아 문제를 다룬 작품이다. 소설의 발단은 해

12) Robert Rogers, *A Psychoanalytic Study of the Double in Literature*, Wane State Univ. Press. 1970, p. 7.

13) 육체적인 불구성과 내면의 상처가 대응되는 대표적인 더블로 『토지』의 조병수와 삼월을 들 수 있다. 아버지 조준구로부터 버림받고 어머니 흥씨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삼월을 보면서 병수는 “삼월의 멍든 얼굴”과 내면의 상처를 “자기 등에 짊어진 혹”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여, 둘의 관계를 ‘장화와 흥련’으로 비유한다. 가시적으로 드러난 기형적인 육체와 숨겨진 채 견뎌야 하는 성폭력과 상전의 냉대를 대응시켜 희생자라는 공통점을 지닌 더블로 형상화하는 동시에 병수에게 부모를 대신한 죄의식을 부여하는 고도의 인물형상화 전략을 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여관을 운영하는 최만호씨에게 아이가 없는 것. 곧 절손의 문제<sup>14)</sup>에서 시작된다. 어느 날 바닷가에서 자살을 한 양공주의 아이<sup>15)</sup>가 ‘개구멍반이’로 이 여관에 들어온다. 아이가 없는 최만호 부부는 미나를 양녀로 삼고 사랑을 쏟는다. 소리로만 불리던 ‘미나’의 이름에 “어디서 어찌 헤매어왔는가”라는 뜻으로 한자 ‘迷那’가 붙여진다. 미나가 해동여관에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최만호씨 조카의 아기가 어머니를 잃고 이 집에 오게 된다. 이후 미나는 점차 해동여관 내의 가족은 물론 주변 사람들로 부터 사랑을 잃고 소외되기 시작한다. 결국 미나리는 혼혈아에 대한 주변의 관심과 사랑이 어떻게 무관심과 배제로 변해가는가가 이 작품의 중심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초반에는 한 생명이자 혼혈아로서 미나의 외모에 대한 긍정적인 묘사, 낯선 것에 대한 호기심 섞인 묘사가 나타난다. 처음에 그들의 눈에 들어온 미나는 “얼굴은 해맑았고 긴 속눈썹이 깊은 그늘을 지워주는” 아이, “마치 길을 잘못 든 천사가 피곤에 지쳐 잠시 나래를 접고 잠든 것 같”은 모습의 “호수처럼 맑은 눈”을 가진 아이로 보인다. 박경리의 인물형상화

14) 최만호 집안은 마치 저주를 받은 듯, 형이 죽고 형수가 가출하고 조카는 감옥에 갇히고, 최만호 자신은 남성성을 잃는 등 바람 잘 날이 없다. 해동여관이라는 버젓한 집과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이 집안을 이어갈 후세가 없고, 이 집의 재산을 차지하고자 하는 조카며느리의 욕망, 외부로부터 온 존재로 대를 이어야 할 상황 등의 제시는 『토지』 1부에 이어지는 특징이며, 동시에 전후의 성매매 여성 문제와 병치되어 은유적으로 읽히게 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15) 자살한 양공주의 딸 이야기는 이로부터 5년 정도 후에 발표한 『녹지대』(『부산일보』, 1964.6.1.~1965.4.30.)에서 다시 서사화된다. 이 작품처럼 신체적인 표지가 드러나는 혼혈아로 설정되지는 않지만, 운은자는 어머니가 양공주였다는 사실 때문에 남녀의 교제 문제에서 거리를 두며, 결국 현실적인 선택을 한다. 이 작품은 ‘녹지대’라는 상징적인 공간에서 펼쳐지는 제2세대 인물들의 삶을 중심으로 전쟁미망인과 전후 성매매여성문제가 여전히 끝나지 않는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박경리는 직접적은 아니지만, 전후 여성에게 가해진 보이지 않는 억압과 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을 적지 않게 작품화하였다. 이러한 ‘조심스러운 서사화’ 속에서 당시 여성작가의 침묵과 균열의 지점을 발견하고, 전후의 ‘신가부장 담론’에 의해 왜곡되고 은폐된 문제를 찾아내는 작업은 박경리의 1950-60년대 소설의 주제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진, 『탕녀의 운명과 저항』, 앞의 책.



문법대로라면 긍정적인 인격을 드러내는 외모이다. 하지만 이러한 미나의 신체는 동시에 혼혈아로서의 민족적 수치심을 드러내는 불편한 감정과 혐오를 야기시킨다.<sup>16)</sup> 주변인들에게 미나는 “양짜”, “공주 아이”, “양코쟁이”로 흔히 지칭되며, 드러내놓고 “갈보새끼”라고 부르면서 혈통을 문제 삼기도 한다. 학교에 가서는 아이들로부터 “갈보새끼”라고 따돌림과 놀림을 당하고, 동네 곰보아저씨는 미나만 보면 잡아서 “다리 밑의 문둥이”한테 보내겠다고 겁을 준다. 아이들의 행동은 혼혈아를 ‘성매매 여성의 아이’로 인지하고, 오로지 그 ‘정조를 팔아버린 어머니의 소행’ 때문에 천대하고 배제하고자 한 성인들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또 곰보아저씨의 행동은 정상성에서 벗어나는 신체를 가진 예외적 존재들을 격리하고자 하는 당대 한국인의 무의식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예외적인 존재로서 양공주의 아이를 향한 사랑과 기만의 이중적 태도는 서구(백인혈통)적인 것의 표지에 대한 당시의 선망과 동시에 우리의 순혈주의를 더럽힌 부도덕한 자국의 여성에 대한 연민과 멸시를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미나의 신체는 그대로 한국전쟁의 비극, 그 상처를 은유하는 것이며, 생명을 버리고 홀로 남겨진 전쟁고아의 현실을 상기시킨다. 이 때문에 미나는 주변인들에게 전쟁으로 인한 죄책감과 연민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이다. 또한, ‘순수 혈통을 더럽힌 배출물’로서 불편한 신체를 지닌 까닭에 철저한 배제와 차별의 대상이 된다. 이 작품이 발표되기 직전인 1958년 성매매 여성들을 격리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특정 유흥지역을 설정함<sup>17)</sup>으로써 성매매 여성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차별화하고자 했었음을 환기해볼 때, 이 문제를 소극적으로나마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의 마지막은 최만호씨 조카의 새 아기에게 미나가 자리를 내주면서 시작된 ‘심각한 장난’으로 마무리 된다.

16) 이임하, 『여성, 전쟁을 넘어 일어서다』, 서해문집, 2004, 226쪽.

17) 위의 책, 246쪽.

미나는 혼자 복도로 뛰어나왔다. 아기는 소리를 지르며 뒤따라왔다. 층계까지 온 미나는 모르는 척하고 내려온다. 미나는 더 강한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아기가 자기한테 안기는 그 순간의 눈물겨움도 즐겁은 기분을 더 크게 간직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아기는 허겁지겁 달려와서 내려가는 미나한테 손을 뺀다가 그만 발을 헛디더 층계에서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

“아 앓!”

층계 아래 떨어진 아기의 입에서 빨간 피가 흘러나왔다.<sup>18)</sup>

인용한 장면은 이 위험한 장난의 결과보다는 미나의 소외감과 고독이 가져올 위험에 대한 경고로서 의미가 있다. 그녀의 신체적 표지는 우리의 순혈주의라는 갈등요소에 의해, 한편 애정의 과다와 결핍의 불균형으로 인해 성장과정에서 더 큰 상처를 입을 터이고 미나는 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버려진 아이로서 왜곡되고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자라나게 될 미나와 아기의 더블 형상화는 그 10년 후 발표된 장편 소설 『나비와 영경귀』에서 희련과 희정 자매의 인물형상화를 통해 발전적으로 서사화된다.

『나비와 영경귀』(『경향신문』, 1969.5.24.~1970.5.24.)는 신문연재소설로서 이전에 보여준 대중 소설적 문법에 따라, 선악의 대조, 1960년대 부유층의 일상 부각, 악인들의 음모와 삼각관계, 우유부단한 결정 지연, 불륜과 금기라는 애정문제에 의해 서사가 전개되는 특성을 보인다. 한편 작품의 후반부가 『토지』 1부와 함께 연재된 만큼 이 시기까지 무르익은 인간에 대한 성찰의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않은 주제의식으로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서술된다. 연재 당시 제목은 『죄인들의 숙제』였으나, 범우사에서 단행본으로 출간하면서 『나비와 영경귀』로 개제하였다. 단행본 출간을 앞두고 ‘전후 생존자들의 죄의식’의 문제보다도 희련과 희정 두 자매의 성

18) 박경리, 『해동여관의 미나』, 『환상의 시기』, 나남, 1994, 124쪽.

격과 전후의 삶을 나비와 영경귀로 비유하여 이야기하려는 의도를 강조하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 소설은 12년 터울의 이복자매인 희련과 희정의 갈등이 정신병력의 혈통을 가진 강은식과 강은애 남매,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과 얽히며 진행된다. 결국 강은식과 희련, 은애의 남편 정양구와 남미의 애정 서사가 자살로 끝나면서 가족과 혈통, 전후 사회 문제가 복합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작품의 초반부에 『해동여관의 미나』의 마지막 장면과 유사한 행동이 두 자매의 유년기에 대한 서술자의 장면화로 제시된다.

아이들이란 층계를 기어 올라가기는 하지만 내려오지는 못한다. 그 점을 이용한 희정이 아이[희련- 필자]를 이층에까지 데리고 올라가서는 저만 혼자 내려와 몸을 숨기고 아이의 동정을 살피는 그 못된 장난에 맞을 들인 것이다.

아이는 둘레둘레 살피다가 제 옆에 아무도 없는 것을 느끼자

“언니야! 언니야!”

하고 불렀다.

희정은 자기를 찾는 아이 부르짖음에 희열을 느꼈다. 응, 나 여기 있다! 마음속으로 외쳐보는 그 순간만은 희정이 외롭지 않았다.

“언니야!”

하다가 아이는 무서움에서 울음을 터뜨린다. 희정은 미친 듯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것이었다.<sup>19)</sup>

이 부분은 미나가 발전한 인물 희정이 이복동생인 희련에게 장난을 하는 장면으로, 상대를 독점하고 괴롭힘으로써 애정을 확인하는 “그릇된 애정”을 지녔음이 파악된다. 문제의 인물 희정은 일찍이 어머니를 잃고 할머니의 맹목적이고 과도한 애정과 주변의 냉대라는 모순된 환경 속에서

19) 박경리, 『나비와 영경귀』, 지식산업사, 1989, 36~37쪽.

“아육이 강하고 집념이 무서운 아이”로 자라난다. 아버지가 재혼한 후 새 어머니, 이복동생 희련과 함께 살게 되는데, 끊임없이 주변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한 자살극을 벌이고 위험한 장난과 소유욕으로 인한 거짓말, 자학적 행위 등으로 가족 모두를 불행하게 한다. 전쟁은 이 가족 관계마저 끊어버렸으니 아버지는 월북하고 새어머니는 폭사하고 희정은 “한쪽 팔을 잃은 데다 얼굴에는 파편이 박혀 상처를” 입은 것이다. 희정에게 남은 것은 오로지 한 사람, 위험한 장난을 통해 공포감을 주고 애정을 확인해 보던 동생 희련이다. 작품의 1장은 희정의 봉사과 희생으로 동생 희련이 성장한 이후의 시점에서 시작되며, 자매의 전사(前史)가 압축적으로 제시된다.

『나비와 영정귀』는 각 장별로 초점화된 인물이 달라지는 전형적인 장편소설의 서술양식으로, 전반부는 희련과 은애, 마지막에는 정양구에게 초점을 두고 서술된다. 따라서 희련과 희정 자매의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파괴와 재생”이라는 “기묘한 숙명”은 희련의 시선으로 그려질 뿐, 불구자로서 희정의 고통, 일상적 불편함이나 내적 갈등 등은 전혀 그려지지 않는다. 희정은 희련에게 그저 전쟁의 상처와 희생을 상기시키고, 종속을 강요하고 상실의 불안을 가져다주는 두려움의 대상이고, 채무감과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는 존재일 뿐이다. 어머니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긴 시간 동고동락을 한 가족, 성인이 된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희련은 희정의 비정상적 분노와 신체의 불편함을 이해하고 수용하기보다는 도피하거나 저항하고 심지어 혐오감조차 느낀다. 이것은 희정이 희련의 열등한 인격의 한 측면, ‘내적인 불구성’이 가시적인 신체 기형을 통해 드러나는 검은 대리인, 그림자 인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폭격으로 훼손된 희정의 신체는 전쟁의 비극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녀의 망가진 인격, 모순되고 잔인하기까지 한 병적 집착을 은유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희정의 그릇된 애정의 결과 희련은 폐쇄적이고 자학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였다. 희련의 내면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죄책감, 자신의 조건에 대한 피학적 이해 등 비가시적인 상처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희정의 불구적 신체와 망가진 인격, 그릇된 애정과 다르지 않은 무게를 지닌다. 이 점에서 이 자매는 신체적 결손과 정신적 결손 때문에 상처받은 전쟁고아로서 동일한 불구성과 공통된 단절감을 지닌 채, 서로의 그림자를 투사한 타자들, 더블(double)이다. 이 자매는 이 중에서도 객관적인 더블에 해당하는데, 이는 형제, 자매, 쌍둥이거나 서로 닮은 사람의 의미론적 대립과 갈등에 의해 형상화되는 것<sup>20)</sup>을 말한다. 곧 이들의 내적 갈등은 “외롭고 허무한 채권자”와 “고통스런 채무자”의 관계,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 없이 수수하게 핀 꽃, 다만 그 가시가 너무 억세고 꺾으려 해도 꺾을 수 없게 질긴 줄기”를 가진 엉경귀인 희정과 그런 엉경귀 곁을 못 떠나는 어린 나비인 희련의 대조된 은유로 표현되다.

희련이 희정과 화해하고 독립된 주체로 서기 위해서는 타자화된 그림자, 자기 속에 존재하는 이질성을 파괴하고 벗어나야 한다. 자신의 더블 이미지로서 희정에게 씌워진 부정적인 요소를 파괴해야만 하는 것이다. 희련에게 이런 자각과 용기를 주는 인물이 작품의 중반부를 움직이는 강은식이다. 그는 희련의 절친한 친구 강은애의 오빠로서 어머니가 정신병으로 죽고 아버지가 재혼한 후 도일, 제일교포 사업가로 성공한 사람이다. 희련은 은식을 만나면서 “마음도 몸도 불구인 희정으로부터 받은 비정상의 애정, 그래서 그 자신도 역시 마음과 몸이 불구자 같았던 그 자각은 봄 안개같이 걷혀지고 영롱한 환희가 발밑에서 출렁거리는”<sup>21)</sup> 느낌을 받는다. 하지만 희련은 불구자로 혼자 살아가는 언니 희정에 대한 죄의식 때문에 은식의 사랑을 의심하고 거부하며, 한편 은식은 핏줄에 대한 공포 때문에 희련의 곁에 있는 것을 주저한다.

이처럼 희련과 은식은 아무것도 용납하려 하지 않는 천성, 스스로 세상과 차단하려는 성격에서 공통점을 가진 또 다른 더블이다. 은식의 광기와 죽음에 대한 경계가 혈통적으로 드러난 불구성이라면 희련의 폐쇄성과 자학적인 본성은 감춰진 불구성이라 할 수 있다. 희련과 은식은 서로에게

20) 이재선, 『현대소설의 서사주제학』, 문학과지성사, 1997, 297쪽.

21) 박경리, 앞의 책, 255쪽.

서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끝났고, 또 그것을 통해 자신의 가족에 대해 다시 성찰하는 계기를 가진다.

양친이 있는 외사촌들을 바라보면서 피해망상에 사로잡힌 외할머니의 보호를 받아야 했던 유년시절이나, 정다운 내외간의 재통꾼인 희련을 바라보면서 의무감에서 어쩔 수 없는 형식만의 사랑을 베풀었던 아버지를 대하여야 했던 사춘기, 그리고는 나머지 여자로서 살아야 했던 긴 세월을 불구자라는 형벌에 갇히어 살을 저미는 것 같은 고독을 씹으며 살아왔을 희정을, 희련은 좀 더 일찍 그를 이해했어야 옳았을 것이다.<sup>22)</sup>

희련은 자신이 희정의 “불행의 제물”이고 “부당한 학대”를 당해온 “부속물”이자 “꼭두각시”라고만 생각하던 피학적 태도를 되돌아보고 비로소 건강한 애정관계에 대한 희망과 성찰을 한다. 자신의 더블인 희정으로부터 벗어나 하나의 주체로서 온전하게 서려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찰과 치유의 희망은 부정적 인물들의 황당한 음모<sup>23)</sup>라는 대중 소설적 전략에 의해 쉽게 깨지고 이들은 다시 마음의 문을 닫고 만다. 그리고 이 갈등이 하강적으로 해결되는 지점에서 작품의 핵심적인 주체가 새롭게 조명된다.

『나비와 엉겅퀴』는 고아들의 자살로 끝이 난다. 혈통적 문제를 가졌던 강은식, 은애 남매나 전쟁으로 장애인이 된 희정이 아니라, 이들로부터 고립되고 상처받은 두 인물인 희련과 남미가 자살하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전쟁고아로서, 처음부터 애정이 부재한 상태에서 왜곡된 애정을

22) 앞의 책, 342쪽.

23) 이 작품의 서사를 전개시키는 동력은 대부분의 대중소설이 그러하듯 부정적 인물들의 음모와 전략이다. 희련의 전남편으로 집착적인 애정을 보이는 장기수, 희정의 빛을 이용하여 희련을 차지하려는 최일석, 이 관계를 이용하여 한몫을 챙기거나 이득을 보려는 김바담, 인숙 등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얽히고설켜 음모를 꾸미고 오해를 불러 일으켜 희련 등의 주요인물을 고난에 빠뜨리는 애상적인 플롯과 내용이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받고 버려지는 인물이다. 또 이들이 사랑을 희구하나 좌절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그들이 꿈꾸어 온 ‘집’을 잃는 과정과 함께 진행된다는 공통점도 지니고 있다. 집을 상실한다는 것은, 가족과의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의 터전, 뿌리내릴 수 있는 토양을 잃는다는 것이다. 자매가 살던 그 집은 희련이 외할아버지에게 유산으로 상속받은 집으로서 외가의 숨결과 생전의 부모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곳이다. 하지만 희련은 희정의 연속된 실수에 의해 어처구니없게 집을 잃고 만다. 희련은 집을 팔아 희정이가 진 빚을 청산하는데, 이것으로써 희련이 오랜 시간 감당해야했던 희정에 대한 심리적인 부채를 청산하게 된다. 그러나 강은식과의 새로운 관계형성에는 실패하고 말아,<sup>24)</sup> 돌아갈 곳을 완전히 잃은 셈이 된다. 한편 남미는 부정한 관계이지만, 본인이 사랑한 정양구를 기다리고 함께 사랑을 나누던 집을 매도한다. 관계가 종식되었고 불치의 병에 걸렸으므로 역시 그녀에게 애정을 나누고 삶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양은 불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 작품의 마지막이 전쟁고아인 희련과 남미의 자살로 마무리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에 작품의 무게가 실려 있기 때문이다. 작품의 후반부에서는 이들의 죽음에서 살아남은 ‘죄인들의 숙제’를 발견하고 이해하는 ‘레조뇌르(raisonneur)’ 정양구의 시선과 목소리를 통해 이 문제가 심도 있게 서술된다. 그는 자신이 버리고 떠났던 남미가 사실은 고아였고 또 그 뒤로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난 후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애정을 요구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그저 자신을 물건이나 다름없이 생각하고 살아야 했던 전쟁고아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정양구는 별안간 터져나오는 웃음을 간신히 참는다. 다음 그는 전율을 느꼈다. 인간 부재, 애정 부재, 그리고 거리를 누비고 다니는 기형아들의 무리

24) 강은식은 마지막 부분에서 새어머니와 아버지, 형제들이 살고 있는 집을 방문한다. 혈통적인 문제 때문에 2세의 생산을 스스로 포기하였지만, 아버지 중심의 새로운 가족관계의 형성은 그에게 생명을 유지할 이유를 깨닫게 해주었다 할 수 있다.

가 따갑게 눈을 자극해 온다. 기형아들의 무리가 사라지고 눈빛 머리빛이 다르고 모습이 달랐던 이방인들이 와서 아이들에게 캔디를 나누어 주던 해방직후의 광경이 선명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전쟁이 났다. 남미 같은 고아가 많이 생겨졌다. 전쟁이 끝나자 도처에 고아원이 세워졌다.

고아들을 구제하는 식량과 의복이 국외에서 들어오고 국내에서도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다. 그러나 애정만은 비행기에 실어 올 수 없었고 트럭으로 실어 낼 수 없었다.

(중략)

(기형아다! 고아원의 울타리 속에서 만들어내어 놓은 기형아. 아, 아니다. 고아원의 울타리는 고아원의 울타리는 아니지. 이 한국 전체가 고아원이 아닌 말이다. 거리에 우글거리고 있는 기형아들, 나를 포함해서 고아는 매일 매일 만들어지고 있다. (후략)<sup>25)</sup>

그는 전후 도처에서 만날 수 있었던 전쟁고아들의 삶에 대해 상상하고 경악한다. 전후 국가재건 과정의 그늘에서 소외된 채 자라난 이들의 문제가 비로소 환기된 것이다. 그는 전쟁고아라는 예외적 존재들의 삶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 속의 불구성을 모르는 채 달려온 모든 이들을 마침내 “기형아”라고 규정한다. 전쟁고아나 마찬가지로 모두 비정상적으로 살아오고 있음을 자각하는 것이다. 이어 작품의 마지막에는 강은식의 입을 통해 이런 기형아들의 세상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남으려면 남을 먹는 일을 하면서도 진실을 외면하고 죄의식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다. 자신의 죄악을 쉬이 잊는 강한 자만이 살아남고, 이를 못 견디는 약한 자는 죽게 된다는 결론은 윤리적인 역설로서 강자에 대한 엄정한 비판과 살아가기 위해 지켜야 할 준엄한 자기 성찰을 강조하는 것이다. 불안이나 공포, 죄책감, 수치심 등은 실존적인 감정들로서

---

25) 앞의 책, 443~444쪽.



우리 존재, 세상에서의 위치, 삶과 죽음, 삶의 질에 대한 의미와 개념들과 관련되는 것이다. 이중 죄책감은 우리의 도덕적 잘못에 대한 것으로서 이를 경험하려면 우리 자신을 평가한 내적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sup>26)</sup> 작가는 정양구와 강은식의 입을 통해 ‘죄의식을 갖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적인 주장을 함으로써 당시 사회가 도덕적인 기준, ‘양심’이라고 부르는 내적 기준이 부재하고 있음을 힘주어 비판하고 있다. 연재시의 제목대로 ‘죄인들의 속제’이다.

이 장에서 다룬 『해동여관의 미나』와 『나비와 엉경귀』에서 전쟁으로 인해 훼손, 혹은 생성된 불편한 신체가 전쟁고아들의 드러나지 않은 상처와 사회적 폭력 그리고 소외감을 외면화한 것으로 그려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사실 두 작품에서 신체적 특징과 장애는 독자들의 고정적인 정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객관적 상관물’로서, 비극적 결함을 자각하게 하는 ‘은유’일 뿐<sup>27)</sup> 구체적인 불편과 사회적 현실적 문제는 심각하게 형상화되지는 않았다. 그저 누군가와 변별적인 ‘차이’를 가지적으로 강조<sup>28)</sup>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인물들을 통해 제시된 그릇된 애정과 죄의식의 문제는 전후 사회의 폭력성에 대한 고발에 그치지 않고 ‘살아있음’의 본질적인 원죄의식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나비와 엉경귀』의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했으며, 이는 다음 장에서 살펴볼 작품에서도 나타난다.

26) 리처드 레저러스 · 버니스 레저러스, 『감정과 이성』, 정영목 역, 문예출판사, 1997, 65쪽.

27) 예를 들어 박경리의 『파시』에서 박응주의 누나는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녀의 청각장애의 문제는 전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서사전개를 위한 하나의 장치로만 작동한다. 곧 부재하는 어머니를 대신하는 존재면서 한 여자를 동시에 사랑하는 박의사와 응주의 중간에서 소통불가의 가족관계를 은유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28) 장영희, 앞의 글.

### 3. 비이성적 공포와 혐오감

『나비와 엉겅퀴』에서 ‘기형성’을 전쟁고아라는 예외적이고 폭력적 현실 문제의 은유로 사용했다면, 이보다 2년쯤 전에 발표된 단편 『쌍두아(雙頭兒)』(『현대문학』, 1967.5)에서는 기형성을 인물의 신체표지로 구체화시킴으로써 인간의 원죄의식과 연관하여 더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전쟁 전 부잣집 외아들이었던 종서는 삼촌에게 집과 재산을 빼앗기고 판잣집 셋방살이를 하고 있다. 그의 유일한 노동은 번역. 그 세계 속에서 그는 간접적인 사회생활을 할 뿐, 취직도 안 하고 친구에게 “거렁뱅이” 소리를 들어가면서 외부와 차단한 채 살고 있다. 어느 날 우연히 전쟁 전에 헤어진 계동집 영혜를 길에서 만난다. 17년만의 상봉에서 그들은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서로를 동일시할 만한 유사한 고통과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음을 어렵듯이 깨닫게 된다. 그러나 영혜는 종서에게 가까이 다가갈수록 유사하면서도 다른 느낌을 받게 된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해보려 애쓴 결과 그것이 내적 불구성과 외적 불구성의 차이임을 알게 된다.

“비밀이 있어 숨긴다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형벌인지, 그리고 그것은 끝이 없는 거야. 저지른 죄는 털어놓으면 끝이 나는 건지도 몰라. 하지만 내가 무엇을 저질렀단 말이야? 나는 아무것도 저지르지 않았어. 처음에 죄인을 우리 엄마라도 생각했어. 하지만 엄마도 나처럼 아무 일도 저지르지는 않았어. 다음에는 하나님을 죄인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 죄인은 형벌밖에 있었으니, 분명히 조물주의 실수인데 그는 실수를 자인하기는커녕, 나에게만 속죄하기를 바라는 거야. 불구는 내 죄가 아니야. 그런데 나는 그것을 숨기고 비밀로 하고, 그 비밀로 하여 나는 인간들에게 접근할 수 없는 감옥에서 살아왔단 말이야. 내 성질은 살인자처럼 거칠어지고 열리지도 않는 감옥을 주먹으로 치다가 나는 저승에서 죄를 졌다. 저승에서 죄를 졌다 하고 주저앉는 거야. 정말 외로운 세월이었어. 오욕에 가득 찬 하루하루가 갔던 거

야.”<sup>29)</sup>(밑줄-필자)

영혜를 힘들게 해왔던 것은, 특히 종서에게 이성으로서의 호감을 느끼면서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반죽이 잘못되어 달라붙은 것 같은 큰 귀, 검붉게 부푼 육피’로 묘사되는 기형적인 귀를 가졌다는 사실이다. 영혜는 그 귀를 보여주며 자기가 그간 고립되어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종서에게 어렵게 고백한다. 자신에게 부조리하기만 한 운명 때문에 “인간들이 접근할 수 없는 감옥”에서 속죄양이 되기를 요청받았던 오욕의 시간들에 저항하며, “불구는 내 죄가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정작 영혜의 귀를 본 종서는 연민과 이해가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염오”를 느낀다. “목을 누르는 듯 심한 압박감”을 느끼면서 겨우 흉하지 않다고 말해줄 뿐이다. “도망치듯” 달아나는 태도를 통해 종서의 염오를 전달받은 영혜는 바닷가에서 자살하고 만다. 어렵게 세상과 소통하고자 하였지만, 결국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이 작품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기형적인 귀라는 신체 표지와 소외, 비극적 죽음보다는 영혜를 대하는 종서의 태도이다. 종서는 영혜의 귀를 보고 난 후, 이를 반복하여 떠올리면서 염오의 감정을 느끼고 피하고자 한다. 그는 길을 나서서도 도처에서 장애인을 마주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며 비정상성에 대한 비이성적인 공포와 그것을 느끼는 자신에 대한 당혹감 사이에서 갈등한다. 그렇다면 종서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었던 염오의 감정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종서가 전쟁이 끝난 후에 군대에서 생활했을 때, 외삼촌과 숙모는 실망과 증오의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자신들이 차지할 수 있었던 집과 재산을 종서에게 돌려주어야 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생환이 누군가의 생존에 장애와 불편이 되는 상황, 조카의 재산을 빼앗으면서 수치심도 모르는 그들로부터 종서는 큰 상처를 받는다. 그리고 이 때문에 세상과 고립되어 무기력하게 살아왔고, 이것은 자신도 싫어

29) 박경리, 『쌍두아』, 『환상의 시기』, 나남, 1994, 278쪽.

하는 열등한 인격으로 무의식에 억압되었다. 종서가 영혜의 기형적인 귀를 보고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불편한 감정, 혐오감, 경멸의 감정을 드러내고 만 것은 영혜의 기형적인 귀가 종서의 어두운 인격의 한 측면, 그림자의 에너지를 분출시켰기 때문이다. 곧 영혜는 종서의 ‘내적인 불구성’이 가시적인 신체 기형을 통해 드러내는 검은 대리인, 그림자<sup>30)</sup>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쌍두아’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종서와 영혜는 두 개의 머리를 가진 한 몸,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살 수밖에 없는 동일한 불구성을 가진 더블이다. 영혜는 내면의 달갑지 않은 요소들, 터부시하거나 망각하고자 하는 요소들, 사회적인 규범이 ‘악’이라고 규정하고 배척하고 억압한 요소<sup>31)</sup>가 기형적 신체의 타자로 나타난 더블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더블은 자신과 꼭 닮은 것이면서 자신을 확립하기 위해 파괴하고 벗어나야 할 대상이다. 결국 영혜가 자살하고 난 후 종서에게 주어진 것은 제대로 된 삶이라는 무거운 책무, 살아남은 자의 준엄한 자기성찰이다. 그것은 이미 『나비와 영경귀』에서 희련과 남미가 자살한 후 정양구의 목소리로 고백되었던 ‘죄인들의 숙제’이다.

『쌍두아』에서 종서가 영혜에게 느꼈던 혐오감과 당혹감 등은 『토지』의 최서희와 최환국 모자에게도 나타난다. 기형적 신체를 가진 병수에 대한 사회의 공포심과 손 위에 끔찍한 흉을 가진 양소립에 대한 최환국의 혐오감은, 이들을 연민으로 감싸고 수용할 것이라는 독자의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린다. 평사리를 이끄는 핵심인물이 되기에는 윤리적인 측면의 개연성을 떨어뜨릴 만큼 이들의 반응은 부자연스럽고 과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조준구의 아들 조병수는 곱추이다. 곱추는 가장 전형적이고 비극적인

30) 이부영, 『그림자』, 한길사, 2004, 88~92쪽.

31) 황승환, 『자아의 분열인가, 통일성에 대한 욕망인가?(2)』, 『독일문학』 129집, 한국독어독문학회, 2014.

신체기형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병수의 외모는 조준구부부에게 혈통적 공포의 대상이자 수치심의 원인이다. 이런 까닭에 병수는 “서울서 열두 살까지 불구 자식을 수치로 아는 흥씨에 의해 세상 구경을 못하고 어둡침침한 골방에서 자란”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감각이 예민하고 감수성이 빠르며, 직감이 정확하고 인간 행위의 존엄성을 헤아리는 의지를 자각한 인물로 그려진다. 결국 병수는 오욕만을 안겨 준 평사리에서 자살 시도를 거듭한 끝에 이곳을 떠나 통영에서 소목일을 하는 예술가로 당당하게 거듭난다. 어린 시절 멀리서 연정을 가지고 바라보던 서희와도 길상이 그린 관음탱화 속에서 화해에 이른다. 부모의 사악한 혈통은 오로지 불구적인 신체로, “등에 짙어진 흑”으로만 표현되었을 뿐, 병수는 이처럼 시종일관 맑은 영혼의 소유자이자 예술적 감성을 지닌 긍정적인 인물로 형상화된다.<sup>32)</sup>

문제는 이런 병수를 보는 서희의 시선에 있다. 간도로부터 돌아온 서희는 평사리의 집을 되찾고도 한동안 그 집에 가지 않는다. 그 집에 남아 있던 조병수의 외모에 대해 병적인 혐오감과 공포를 느껴서이다.

고국으로 돌아온 후, 평사리 마을이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실감과 함께 걸러내어도 여전히 남아 있는 가장 더러운 찌꺼기 같은 혐오는 때때로 충격 같이 그에게 엄습해 오는 것이었다. 가없는 불구자 병수의 뜻도 아니었으며 잘못도 아니었는데, 그러나 이해의 여지가 없을 만큼 충격적인 혐오감에는 늘 견딜 수 없는 공포까지 동반하는 것이었다. 병수가 싫었다. 너무 싫었기 때문에 무서웠다. 반드시 너의 신랑이 되어야 할 병수라는 흥씨의 말이 병수의 존재를 악몽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32) 병수는 외모와는 달리, “해맑은 눈동자에는 어떤 의문의 빛도 없었으며 얼굴은 아름답다웠다. 계집아이같이 입술은 빨그레했다.” “투명하고 창백한 얼굴에 커다란 눈”, “기괴스런 병신이지만 얼굴은 천상의 동자(童子)같이 깨끗하다. 달밤에 이슬만 먹고 자란 풀잎처럼 가냘프다. 조준구의 모습이 없는 것은 아니나 부모들과는 판판으로 어떤 성령이 그의 속에 깃들어 있는 것처럼 정하고 귀하게 보인다.”와 같이 묘사된다.

‘나를 꺾추하고 혼인하라고? 그 더러운 병신하고!’

병수는 서희 의식 속에 마귀로, 괴물로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략) 그는(서희는) 우연찮게 꺾추를 볼 때 손발을 오그리며 떤다. 수모를 당하였 다든가 보복을 하겠다든가 그런 사고(思考)를 거치지 않은 반사적 공포본 능이다. 그것은 또 상상이 몰고 온 공포본능이기도 하다. 괴물에게 제물로 바쳐지는 처녀의 참상은 과거와 현재, 상상과 현실을 초월한 서희의 환상이다.<sup>33)</sup> (밑줄-필자)

서희에게 병수는 “충격적인 혐오감”과 “견딜 수 없는 공포”의 대상, 마귀나 괴물과 같은 존재로서 싫고 무서운 사람이다. 공포는 개인의 안전,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에 생기는 문제와 관련되는 실존적 감정이다.<sup>34)</sup> 곧 어린 시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몰래 도피해야 했던 서희의 악몽과 관련하여 생긴 감정이다. 이 감정은 마침내 자신과 결합될 뻔 했던 병수를 악의 형상을 한 괴물로, 자신은 괴물에게 바쳐지는 처녀로 보는 환상적 이야기와 결합하여 서희를 지속적으로 괴롭힌다. 그 공포는 원인이 제거 되고 두 아이의 어머니이자 평사리의 정신적 지주로 성숙한 후에도 이성적인 조절이 안 될 만큼 심하다. 그것은 조병수가 서희의 친밀하면서도 낯선 두려움의 대상, 더블이기 때문이라 설명할 수 있다. 조병수가 부모로부터 버려지고 고립된 채 자란 자기 또래라는 점에서, 또 그 악마적인 대상이 조준구와 흥씨라는 점에서, 결국 둘 다 전세대의 악행과 저주를 푸는 운명에 처해진 대속적 존재라는 점에서 분명한 친밀함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가로챈 조준구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두려움을 버릴 수 없다. 또한 조병수는 평사리에서 생긴 모든 비극적 사건들, 아버지와 어머니의 죽음, 할머니 윤씨부인과 측근들의 목숨을 빼앗아 간 호열자, 대를 이은 불륜과 가문의 저주 등을 서희에게 떠올리게 했을 것이다. 아울러 조준구가 서희에게 저지른 악행은 서희가 간도에서

33) 박경리, 『토지』 9권, 마로니에북스, 351~352쪽.

34) 리처드 레저러스 · 버니스 래저러스, 앞의 책, 63쪽.

반민족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재산축적에만 몰두하며 저지른 수치스런 과오와 다를 바 없다. 그토록 증오했던 친척아저씨처럼 자신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에만 눈을 돌렸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조병수가 서희에게 반사적인 공포를 일으키는 것은 단지 어린 시절의 심리적인 상처 때문만이 아니라, 『쌍두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내면의 달갑지 않은 요소의 타자화, 내적인 불구성의 외면화로 드러난 그림자 인물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아들 환국이 사랑하는 양소림의 손등에 있는 혹을 발견하고 혐오감과 연민 속에 갈등하는 모습에서도 똑같이 반복된다. 생인손 치료를 받던 환국은 어느 날, 자신이 좋아하던 양소림의 한쪽 손등에서 “꾸물거리고 있는 것만 같은 자두알보다 훨씬 큰 혹”, “푸른빛과 자줏빛이 엷섞인 울퉁불퉁한 징그러운 형태”를 보게 된다.

“미, 미안함,”

사과를 하다 말고 환국은 자신도 모르게 악! 하고 소리를 지를 뻔했다. 도망을 치려는 자세로, 그러나 선 자리에 못 박힌 채 시야를 빨아 당기는 물체를 응시한다. 그것은 확실히 괴물이다. 소녀의 한쪽 손등 위에 꾸물거리고 있는 것만 같은 자두알보다 훨씬 큰 혹은 푸른빛과 자줏빛이 엷섞인 울퉁불퉁한 징그러운 형체였다. 환국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으나 다음 순간 두 손을 등 뒤에 감춘 소녀의 얼굴은 거의 잿빛이었다. 크고 뚜렷한 눈동자가 환국을 노려본다. 그 눈빛은 살기였으며 어둡게 타는 불꽃이었다. 언제 그랬는지 소녀는 병원 안으로 사라졌고 환국은 병원 밖에 나와 있었다. 하늘은 눈이 부시게 푸르고 차가웠다. 환국은 토할 것만 같은 현기를 느끼며 걸음을 옮긴다. 소녀가 양소림(楊小林)이 아니었던들 기분은 다소 안 좋았겠지만 그 불구자를 위해 가슴이 아픈 것으로 그쳤을 것이다. 충격은 너무나 컸었다. 충격이기보다 일종의 공포였는지 모른다. 순간적으로 느낀 혐오감, 또 계속해서 남아 있는 징그러움다는 느낌에 대한 자기 불신, 죄책감도 있었을 것이다.<sup>35)</sup> (밀줄 - 필자)

다른 사람이었다면 “가슴이 아픈 것으로 그쳤을”, 곧 그저 연민의 감정에서 멈추었을 그 사건은 환국에게 여러 차례 반복되어 기억되며 공포와 혐오감, 자기불신과 죄책감으로까지 이어진다. 이 비이성적인 혐오감은 양소림이 자신과 친숙하고 유사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 강하게 나타난다. 소림은 진주 양교리 집안의 외동딸로서 환국은 신분상 걸맞은 배필로 사랑의 느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환국이 소림에게 투사한 자신의 상처는 무엇인가. 최환국은 참을성이 강하고 천성이 부드러우며, 부유한 환경에서 큰 문제없이 자라는 것으로 서술된다. 환국의 성장과정에서 갈등을 일으킨 사건이라면 아버지 길상이 하인이었다는 말 때문에 순철과 크게 다투었던 일이다. 서희는 이를 무마시켜 주었지만, 자신의 출신에 대한 것은 큰 충격으로 남아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자신의 상처가 소림의 흑으로부터 환기되고 결국 혐오감으로 이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소림도 역시 환국의 그림자가 투사된 더블로 등장한 것이라 설명할 수 있다. 한편 소림은 이 손등의 흉한 흑 때문에 박의사의 조수로 있던 정운과 성대하고 비참한 결혼식을 한다. 이후 소림은 자신의 손등 위의 추물같이 인간은 추악한 것이며 인생은 오욕에 가득 차 있는 것이라고까지 생각하게 된다. 그것은 자신의 흑을 보는 순간 ‘공포에 가득 찼던 환국의 눈’으로 인한 것이며, 손등의 흑 때문에 ‘영원한 고독의 형벌’을 받아야 할 것 같은 질타였다고 느낀다.

사실 『토지』에서 임이네 같은 인물이 어리석음과 탐욕으로 벌이는 사악한 행동을 보고 혐오와 섬뜩함을 느끼는 것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임이네가 그칠 줄 모르는 탐욕과 도벽으로 재물을 모으고, 용정 대화재시에 돈을 숨긴 베개를 불속에 태워버리고 망연자실해 하는 모습을 보고 용이가 마치 뱀을 보는 것처럼 느끼는 섬뜩함, 삶을 연장하기 위해 “자라를 삶아 먹고 흰 비둘기를 털 있는 채 고아 먹고 다릅나무의 잎을 달여 먹고, 새끼 낳은 고양이 안태까지 뺏어다가 날 것

35) 박경리, 『토지』 11권, 마로니에북스, 2013, 172~173쪽.



으로 먹”는 행위에 대한 용이의 혐오감이 그러하다. 그러나 임이네의 경우와 달리, 병수의 외모나 소림의 손등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원인이 되거나, 어떤 갈등이나 방해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 이들은 그 신체적 결함을 제외하고 오히려 선하고 긍정적인 인물로 그려지기까지 한다. 또한 서희와 환국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들에게처럼 충격적이고 깊은 공포와 혐오감을 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이성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비이성적인 공포, 본능적인 회피로서 역시 비정상성에 함축되어 있는 비극성과 ‘차이’에서 야기되는 것이다. 결국 이 가시적인 신체장애에서 최서희와 환국이 특별한 공포를 느꼈던 것은 최씨가 비극적인 사건들, 저주받은 가문의 혈통을 상기시키고 그로 인한 부정한 행동과 실수, 미래에 대한 불안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 4. 생명의 아픔, 그 죄의식

박경리의 초기작으로 1950년대의 문제작 『불신시대』의 첫 부분은 전쟁 중에 처참하게 죽어간 소년병에 대한 전언에서 시작된다. 주인공 진영은 전쟁 중에 폭사한 남편이 전한 소년병의 이야기, “폭풍으로 터져나온 내장에 피비린내를 맡은 파리떼들이 아귀처럼 덤벼들고 있”고 그렇게 죽음을 맞은 소년병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한다.

아직도 나이 어린 소년이었더라는 것이다. 그 소년병은 가로수 밑에 쓰러져 있었는데 폭풍으로 터져나온 내장에 피비린내를 맡은 파리떼들이 아귀처럼 덤벼들고 있더라는 것이다. 소년병은 물 한 모금만 달라고 애걸을 하면서도 꿈결처럼 어머니를 부르더라는 것이다. 그것을 본 행인 한사람이 노상에 굴러있는 수박 한 덩이를 돌로 찌개서 소년에게 주었더니 채 그것을 먹지도 못하고 숨이 지더라는 것이다.<sup>36)</sup>

이 소년병에 대한 기억은 “내장이 터져서 파리가 엉겨 붙은” 소년병에 대한 꿈으로, 다시 울음소리와 집이 무너지는 환각으로 바뀌어, 부조리한 전후 현실에서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진 전쟁미망인 진영을 강박적으로 괴롭힌다. 그 처참한 죽음은 남편의 폭사와 아들의 사고사를 공포스럽게 환기시키는 폭력적 현실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육체의 훼손과 무능력한 모성은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가 두고두고 기억해야 할 장면, 죄의식의 원천이다.<sup>37)</sup> 이 죄의식은 전쟁으로 인한 운명의 엇갈림과 상처를 다루고 있는 『창』(1970)까지 이어지는데, 박경리는 맹시현의 목소리를 빌려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 모두는 양심의 상처를 입”었다고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내뱉는다.

앞서 살펴본 『해동여관의 미나』와 『쌍두아』, 『나비와 영경귀』의 주인공 전쟁고아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도 전쟁의 폭력이 남긴 상처였다. 『해동여관의 미나』에서 전쟁고아 및 양공주 2세의 신체를 바라보는 연민과 멸시의 이중시선은 결국 『나비와 영경귀』의 두 자매를 병적으로 성장하도록 만든 치명적인 원인이 되었다. 이 시선이 만들어낸 내면의 불구성은 다시 불구적 신체로 가시화되고 죄의식을 키우며, 희련과 남미 두 전쟁고아의 비극적 종말로 이어졌다. 『쌍두아』에서 ‘살아남음’ 자체가 누군가에게 큰 손해와 증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데서 중서가 받은 충격은 모두 실존의 공포와 책임을 무겁게 표현한 것이다. 곧 전쟁으로 상처 입은 결손 인물들에 대한 시선과 실존적 감정을 통해, 전후 사회에서 ‘양심’이라고 부르는 도덕적 기준이 붕괴되었음을 역설적으로 비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박경리가 이들 결손인물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36) 박경리, 『불신시대』, 『환상의 시기』, 나남, 1994, 59쪽.

37) 박경리 소설에는 폭력과 죄의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 조운아는 전쟁과 같은 폭력뿐 아니라 사회적인 불합리와 부당함 등에 희생되는 무고한 인물들을 통해 폭력적 상황에 처하게 된 근원, 원죄의식을 드러내고 있음을 『김약국의 딸들』, 『내 마음은 호수』, 『재귀열』 등의 분석을 통해 제시한 바 있다. 조운아, 『박경리 소설에 나타난 폭력 희생자들의 원죄의식』, 『인문학연구』 41집,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1.

자 하는 것은 당대 사회문제의 사실적 재현과 비판에서 멈추지 않는다.

결손 인물의 고통을 연민을 가지고 바라보고 서술하는 것은, 문제에 대면하기보다는 피하도록 하는 슬픈 관음증이며, 자기만족적 자부심<sup>38)</sup>에 불과하다. 그것은 멜로드라마의 값싼 전략이라는 것이다. 박경리가 결손 인물의 문제를 서사화하는 방식은 이와는 다르다. 지금까지 보아왔듯 예외적 존재에 대한 특정인물의 불편한 시선을 포착하고 이들의 통제하지 못하는 감정 분출과 강박성을 보여준다. 이런 반응은 주체가 무의식에 억압된 내면적 불구성이 투사된 타자, 더블(double)을 대면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더블 인물의 관계와 시선을 통해 외면적으로 드러난 이들의 상처, 기형이나 이형성들을 상대 인물의 내면에 억압되거나 은폐된 심리적인 불구성에 대응시킴으로써 함께 바라보는 것, 나아가 안과 밖의 전도로 내부의 흉한 상처들을 꺼내 보여주는 것이다.

전후의 성매매여성의 문제를 초점으로 사회의 폭력적 시선과 전쟁 후 유증을 문제 삼고 있는 『해동여관의 미나』는 혼혈의 표지가 드러난 신체를 보는 불편한 시선, 곧 배제되고 어두운 부분에 대한 양면감정을 미나와 아기의 대립과 대면을 통해 보여주었다. 『나비와 영정귀』는 가족의 파탄과 전쟁으로 훼손된 육체, 심리적 상처를 지닌 희정과 희련 자매와, 혈통적 문제를 지니고 스스로 고립되고자 하는 강은식과 은애 남매의 얽힌 서사를 통해, 전쟁으로 인한 신체장애자와 전쟁고아라는 더블 인물을 복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전후의 내면적 불구성은 『쌍두아』에서 가시적인 신체 기형을 가진 인물과 더블로 형상화되며, 그림자 인물에 대한 비이성적인 공포와 혐오감의 표현의 장면은 다시 『토지』에서 굶주린 조병수에게 느끼는 최서희의 감정, 양소림의 기형적인 손을 보고 느끼는 최환국의 감정으로 이어진다. 결국 서희가 자기 가문에 내려진 불합리한 저주와 혈통의 불안을 극복해가는 과정, 그 2세인 환국이 역시 자기 혈통의 불합리하고 어두운 면을 발견하고 벗어나는 과정이 이러한 예외적인 존

38) Fiedler, Leslie A., op. cit., pp. 67~68.

재와의 상호적인 이중 시선을 통해 그려진 것이다. 곧 더블을 통해 회피와 연민이 아닌 대면과 극복의 서사로 전환시키고 있는 것이다.<sup>39)</sup>

앞에서 지적했듯, 주인공이 자신의 더블인 그림자 인물을 대면하면서 느끼는 비이성적 공포와 죄책감, 불안감 등은 실존적인 감정에 속한다. 이는 보다 본질적인 의미에서 자아의 영속을 위협하는 억압되고 배제된 요소들이 가시화된 것을 보는 데에서 오는 ‘섬뜩함(Das Unheimlich)’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프로이트는 과거에 오랫동안 극복해온 것, 버렸던 것, 다른 것들로 대체하고 잊어버리고자 했던 것으로, 억압(un-)을 거쳐 돌아온 친숙한 것(Heimlich)을 ‘섬뜩함’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이 모든 억압된 것들의 귀환에서 오는 섬뜩함은 동일시 혹은 타자에 대한 투사를 통해 자아에 대한 혼란을 일으키게 된다.<sup>40)</sup> 이에 의한다면 『쌍두아』에서 중서는 자신의 생환이 누군가의 증오의 대상이 된 데서 온 실존적 상처로 인해 폐쇄와 고립감을 가지게 되었고, 이것이 기형의 귀를 가진 영혜에게 투사되는 경험 때문에 섬뜩함, 혐오의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서희가 병수를 공포스러운 괴물로 기억하고 반사적인 공포를 느끼는 것도, 환국이가 소림의 기형적인 손을 보고 혐오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이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 것, 또 억압되어 있었던 것이 상대에게 재현되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것은 보다 근원적으로 자신에 대한 부정의 시선에서 비롯된 자기 분열, 존재 지속에 대한 불안감에서 오는 것이다. 자아의 영속, 생명의 지속을 꿈꾸지 못하게 하는 내적 외적 불구성, 혹은 그림자의 상호 투사는 결국 인생에 대한 비극적 인식과 인생에 대한 통찰로 나아가게 한다. 이는 내가 살아남아 있다는 것이 누

39) 이점에서 이 논문은 『토지』가 타자의 고통을 자기화하여 윤리의식의 획득으로 나아가는 지적(박상민, 『박경리 <토지>에 나타난 악의 상징 연구』, 연세대학교박사논문, 2008), 타자의 고통을 직시하고 짊어질 수 있는 윤리적 주체로의 전환을 보여준다는 지적(서현주, 『박경리의 <토지>에 나타난 타자인식 연구』, 『국제한인문학연구』 9호, 2012.2)과 같은 맥락에 있다.

40) S. 프로이트, 『섬뜩함』, 『프로이트의 문학예술이론』, 이노은 역, 민음사, 1997, 410~422쪽.

군가의 죽음에 바탕하고 있다는 삶의 역설, “생명의 아픔”에 대한 자각으로서 위의 작품들을 포함하여 박경리가 수십 년간 견지해 온 비극적 인식의 요체이다. 이 모든 습작을 거쳐 모든 것을 걸어 쓰고자 했던 『토지』의 서(序)가 풍요로운 한가위에 “열매를 맺어놓고 쓰러진 잔해”, 죽은 자들에 대한 기억, “서러운 추억의 현”으로 인해 “쓸쓸하고 가슴 아픈 축제”를 맞이하고 있다고 서술된 것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박경리, 『환상의 시기』, 나남, 1994.  
 박경리, 『나비와 영경귀』, 지식산업사, 1989.  
 박경리, 『녹지대 1~2』, 현대문학, 2012.  
 박경리, 『파시』, 마로니에북스, 2013.  
 박경리, 『토지 1~20』, 마로니에북스, 2013.

### 2. 단행본

- 이부영, 『그림자』, 한길사, 2004, 88~92쪽.  
 이상진, 『<토지> 연구』, 월인, 1999, 151~154쪽.  
 이임하, 『여성, 전쟁을 넘어 일어서다』, 서해문집, 2004, 226쪽, 246쪽.  
 이재선, 『문학의 이해』, 서강대학교출판부, 1988, 5쪽.  
 이재선, 『현대소설의 서사 주제학』, 문학과지성사, 1997, 297쪽.  
 한혜선, 『한국소설의 결손인물』, 국학자료원, 2000, 280~285쪽.  
 마크 S 블럼버그, 『자연의 농담-기형과 괴물의 역사적 고찰』, 김아림 역, 알마, 2012, 8~16쪽.  
 리처드 래저러스 · 버니스 래저러스, 『감정과 이성』, 정영목 역, 문예출판사, 1997, 63~65쪽.

수전 손택, 『질병으로서의 은유』, 이재원 역, 이후, 2002, 15~22쪽, 88~95쪽.

Robert Rogers, *A Psychoanalytic Study of the Double in Literature*, Wane State Univ. Press. 1970, p. 7.

### 3. 논문

박상민, 「박경리 <토지>에 나타난 악의 상징 연구」, 연세대학교박사논문, 2008, 1~170쪽.

서현주, 「박경리의 <토지>에 나타난 타자인식 연구」, 『국제한인문학연구』 9호, 국제한인문학회, 2012.2. 57~85쪽.

이상진, 「탕녀의 운명과 저항 : 박경리의 『성녀와 마녀』에 나타난 성 담론 수정양상 읽기」, 『여성문학연구』, 한국여성문학학회, 2007, 289~324쪽.

이상진, 「운명의 패러독스, 박경리 소설의 비극적 인간상」, 『현대소설연구』, 2014, 373~408쪽.

장영희, 「은유로서의 신체장애 : 미국문학의 경우」, 『미국학논집』 33-1, 2001. 여름, 한국아메리카학회, 185~209쪽.

조윤아, 「박경리 소설에 나타난 폭력 희생자들의 원죄의식」, 『인문학연구』 41집, 2011.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137~168쪽.

황승환, 「자아의 분열인가, 통일성에 대한 욕망인가? -패러다임 변환기의 문화 현상으로서의 도플갱어 연구(2)」, 『독일문학』 129집, 한국독어독문학회, 2014, 101~130쪽.

S. 프로이트, 「섬뜩함」, 『프로이트의 문학예술이론』, 이노은 역, 민음사, 1997, 391~430쪽.

Fiedler, Leslie A. "Pity and Fear: Images of the Disabled in Literature and the Popular Arts", *Salmagundi*, No. 57, Summer 1982, Skidmore College, pp. 57~69.

**Abstract**

## Eyes for Exceptions and Double

- Defective Characters in Park, Kyung-ni's Novels

Lee, Sang-Jin

Park Kyung-ni's novels often feature characters whose personalities and characteristics show in typical manners. However, Park's characters with physical and mental deficit tend to differ from such typicalities, and are much more detailed. The author reveals deep insights and tragic awareness about human issues through such exceptional characters. This study draws on Park's works including *Mina in Haedong Inn*, *The Butterfly and Thistle*, *Two-Headed Child*, and *Toji* in order to study the author's perspectives on characters with deficit and the way that they are projected. This study also delves into the intertextuality issues rising from such characters as well.

In *Mina in Haedong Inn*, we see the double vision of sympathy and disdain for and against war orphans and children of "yankee princesses." This uncomfortable attention evolves into a metaphor for alienation and pain suffered by the war wounded and war orphans in *The Butterfly and Thistle*. By painting these characters and drawing realistic emotions, Park paradoxically criticizes the collapse of internal moral standard of "conscience" in the post-Korean War society.

The internal disability of the post-war era materializes as a character with a visible physical deformation and double in

*Two-Headed Child*. The irrational disgust and fear felt by the protagonist while dealing with a shadow character who is his double is evidence that the work is a tragic epic alluding to the return of the awareness for the original sin, and the depressed elements. This extends to the emotion felt by the character Choi Seo-hee in *Toji*, for the hunchback Cho Byeong-su, and the disgust felt by Choi Hwan-guk in the same novel, when he sees the deformed hand of Yang So-rim. The shocking disgust and irresistible fear is ‘das Unheimlich’, or revulsion, that comes from seeing the visualization of repressed and excluded elements that threaten the continuation of self. This is a normal sense of guilt, the “pain of living thing,” that has to be had by those who survived, and it is also Park’s tragic awareness that she maintained in her works.

Key words : Park Kyung-ni, *Mina in Haedong Inn*, *The Butterfly and Thistle*, *Two-Headed Child*, *Toji*, Double, Eexceptions, Defective character, Disgust, Fear, Sense of guilt, Das Unheimlich(uncanny), Intertextuality, Tragic awareness

■ 본 논문은 2015년 7월 20일에 접수되어 2015년 7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5년 8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